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쿠바 교회 1400여 곳 몰수 당해

주일 예배시간 중 여성들을 이유 없이 체포, 감금

쿠바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대형교회 여러 곳을 철거하기 시작해 교회 1400여 곳을 몰수했다고 세계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쿠바에서 벌어진 종교 자유 위반 사례는 교회건물 몰수, 교회부지 폐쇄, 종교인 부당감금 및 희롱, 종교인 사유물 불법 회수 등의 사건을 포함해 모두 약 1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CSW는 “지금도 1000여 곳이 넘는 교회가 몰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회를 ‘위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5년 쿠바 정부는 가장 큰 규모의 개신교파인 하나님의 성회 소속 교회 약 2000여 곳을 위법화하고, 이 가운데 약 1400여 곳의 교회를 몰수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초 쿠바 당국은 “교회부지 몰수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감금을 자행하고 있어, 올해만 9명의 목회자가 부당하게 감금되었다.

보고서는 “매 주일 예배시간 중에 약 80여 명의 여성이 이유 없이 체포된다. 이들은 예배가 종료될 때까지 감금되며 예배가 끝나는 시간쯤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져 집까지 스스로 찾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1959년 이래 피델 카스트로에 의한 일당 독재국인 쿠바에는 약 600만 명의 크리스천이 거주한다. 이는 1100만 명 쿠바 인구의 50%가 넘는 숫자다. 쿠바 내 가파른 교회 성장세를 감안하면, 실제 기독교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GNPNEWS]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베드로 전서 4:12~13)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쿠바의 교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



- 아프리카 차드 교회 유아세례식

제공: WMM

한 부부가 성도들 앞에서 두 팔에는 이제 막 백일이 지난 듯한 아기를 한 명씩 안고 있다. 행복하고 기쁜 얼굴의 젊은 엄마, 그 옆에서 있는 아빠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새하얀 천에 둘러싸여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열매다.

이 아기들을 태초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태어났음에 감사하며,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으로 아기들을 키울 것을 주님 앞에 서약한다. 성도들이 이 부부와 아기들의 증인이 되어준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이 부

부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GNPNEWS]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잠언 14:26)

다음호는 9월 18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8)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으신가요? 각박한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두 천국으로 보내주면 좋지 않냐고 따지고 싶으신가요?

어느 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당해 죽었습니다. 경찰

은 그 강도를 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인지라 그 살인한 강도를 무죄로 판결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떨겠습니까? 아마도 그 재판장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재판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공의를 실현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분통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공의대로 당신과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신과 우리

모두 지옥행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는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명하는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



아들이 너 대신 죽었으니 지옥을 향한 걸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공의와 사랑의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십시오. [GNPNEWS]

INSIDE

02 뉴스 | 아시아
“北 기독교인들, 특수부대 살상 훈련용, 생체실험으로 살해돼”

03 기획 | 터키
터키, 세속국가에서 이슬람국가로 선회하는가

05 인터뷰 | 김맹관 선교사
“언어가 안 통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연합이 이뤄졌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이중간첩으로 살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08 뷰즈인 북스 | 히말라야의 눈꽃 티벳교회를 위해 히말라야의 눈꽃이 된 사람

아시아

“北 기독교인들, 특수부대 살상 훈련용, 생체실험으로 살해돼”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적발될 경우, 군 특수부대의 살상훈련용이나 화학실험에 투입되는 등 극심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VOA는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목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6.25 한국전쟁 이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색출, 탄압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일부 기독교인을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

로 보내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그곳에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후손들이 감금돼 있다.

관리소로 보내진 기독교인들은 심할 경우 북한군 특수부대의 살상훈련용으로 투입돼 목숨을 잃었고 최근에는 화학실험에 투입된다는 증언도 들려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북한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종교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관심이 절실하다고 VOA가 전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2015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미 국무부가 10일 밝힌바 있다. [GNPNEWS]

세계

전 세계 인구의 74%가 종교 자유 심각하게 제한받아



최근 발표된 201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The 2015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에 따

르면 전 세계 인구의 74%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다. 또 나라별로는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소수종교 집단이나 특정한 나라에서 비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종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특정한 규제들’이 증가한 국가의 수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많은 나라에서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종교자유

약화는 강력한 연계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성모독법을 주목했는데 데이비드 사피스테일 국제종교자유 특임 대사는 “신성모독법은 오싹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의 국가에 신성모독법이 있다. 또한 10% 이상의 국가들이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법들은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들을 탄압하고 위협하는데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신성모독과 개종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GNPNEWS]

한국

10.31 종교개혁기념일, 금식기도성회 개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소망하는 금식기도성회가 종교개혁기념일인 오는 10월 31일(월) 성남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열린다.

복음기도동맹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소망하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기도모임을 갖기로 했다. 복음기도동맹은 이에 앞서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30일 기도를 진행하며,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복음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30일 기도를 위해 뜻있는 분들의 헌금으로 ‘30일 기도정보집’을 제작,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기도정보집이나 기도성회에 대한 문의 및 안내는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010-3141-2022(복음기도동맹 사무국)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7~8.2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북한 군인에 한 끼 70g 배급... “두 술이면 다 없어진다”

북한군이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들에게 한 끼 권장량의 약 30%인 70g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이같은 북한의 군인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훨씬 못 미친다.

주님, 북한 군인들의 배급량이 이러하다면 일반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걱정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소서.

미국 심장병 투병 2세 아기 부모, 세 자녀 살해 후 자살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후 6일 만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2세 아기의 부모가 8살, 5살, 2살의 세 자녀를 총기로 살해하고 자신들도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주여,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모든 미혹을 떨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힌두교 여신 칼리에게 허 바친 여대생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사는 한 여대생이 최근 리바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서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의 소원을 모두 들어달라며 힌두교 여신 칼리에게 허를 잘라 바쳤다고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은 우상에게 절하고 몸을 해하며 소원을 비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소서.

한국 고교생은 ‘대입’ 몰두... EU에선 48%가 직업교육 받아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입시에 전념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 소속 고등학생 가운데 48%가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것으로 15일 EU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나님, 눈이 가리어져 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만을 꿈꾸게 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음세대를 세워주소서.

지난해 중국서 384만 쌍 이혼... 절반 이상 불륜으로 파경

2015년 중국에서 이혼한 부부는 384만1000쌍에 달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내정부 이혼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헤어지는 부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대 파경 원인은 불륜으로 전체의 50.16%를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돌이 한 몸 되게 하신 결혼조차 자이를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8월 5주~9월 2주

- 8월 5주(8.29~9.3)
 - ▶ 경기 성남 / 금광교회 (민현미) 031-731-1001
 - ▶ 경기 광명 / 예향교회 (박상례) 02-897-7019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희락) 031-750-1009
- 9.3(06시~18시)
 -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을수) 02-853-9191
- 9월 1주(9.5~9.10)
 -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이옥신) 031-297-0277
 -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 ▶ 인도네시아 / 자타르타늘푸른교회 (김현중) 021-766-9191
- 9.5~9.10(14~19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 9월 2주
 - 9.15~9.16(07~19시)
 - ▶ 전주 완산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터키, 세속국가에서 이슬람국가로 선회하는가

군부 쿠데타 실패 이후, 유럽연합 포기 시사하며 이슬람 정책 강화

최근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실패 이후, 오랫동안 세속국가를 견지해온 터키공화국이 이슬람국가를 표방하는 종교국가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 정부에 맞선 쿠데타 세력 색출을 이유로 각계 각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며 강력한 이슬람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또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추진하던 친서방 정책을 폐기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터키 선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선교현장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 현장 선교사는 최근 “터키가 수십 년간 공들여온 유럽연합 가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번 쿠데타 사태를 계기로 이슬람 종주국으로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이스탄불 광장에 운집한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수년 전 폐지된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사형제가 있다. 우리(터키)도 1984년까지 사형제가 있었다. (사형제 도입에 대한)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결정하면 정당들이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결정권은 의회에 있으며 나는 의회가 사형제를 결정하면 승인할 것이다.”

사형제 부활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권탄압과 독재의 공포 정치를 위한 사전 포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터키의 사형제 도입은 터키의 유럽연합 정회원 가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사형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국 국민들만 누릴 수 있는 유럽 내 무비자 통행법인 쉥겐조약 협정 대상국가에 포함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 가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강경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터키의 이번 쿠데타 발생 원인과 향후 터키의 선교적 상황을 전망해본다.

▶**쿠데타 발생과 배경** = 지난 7월 15일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건국 이후 군부에서 시도한 다섯 번째 쿠데타에 해당한다. 1923년 터키공화국 수립 이후, 군부의 쿠데타는 1960년, 1980년, 1997년, 2007년에 발생, 터키 사회를 대부

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번 쿠데타는 그러나 이전과 달리 발생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어설픈 해프닝 같이 끝났다. 하지만 쿠데타의 파장은 대규모 숙청과 건국이념인 세속주의로부터의 탈피, 이슬람국가로의 회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쿠데타 발생 당시 해외에 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거리에 나와 반쿠데타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자들은 탱크를 온몸으로 막는 등 군부 쿠데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속전속결로 끝이 난 쿠데타 진압 이후, 정부는 쿠데타 주모자 체포, 구금과 함께 쿠데타의 배후라고 지목하는 페툴라 굴렌의 추종자를 전방위적으로 적발, 숙청하고 있다. 페툴라 굴렌 세력으로 통칭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政敵)은 이날 이후 거의 매일 숙청 대열에 오르며, 숙청 규모만도 수만 명에 이른다.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진행된 주모자, 관련자 검거 및 피의 숙청치고는 초고속, 대규모다.

이번 쿠데타 관련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적으로 보는 페툴라 굴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동안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명단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이번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쿠데타 주도 세력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일정 부분 존재하며 이들이 쿠데타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했음직하다. 실제로 에르도안 총리의 부정축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또 터키의 건국이념인 세속주의를 포기하고 이슬람 국가로 회귀하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속주의 vs 이슬람주의** = 공화국 출범 이후, 터키는 줄곧 세속국가를 지향해 왔다. 오스만제국의 후예로 이슬람 세계의 리더십 위치에 있어야 할 상황이지만, 터키는 중동의 아랍국가들과 달리 ‘탈이슬람화’를 선택했다. 대신 세속주의를 국가 건국이념으로 내걸었다. 터키의 정치이념인 세속주의는 세속화와는 다르며, 공화주의, 민족주의, 개혁주의, 정부주의와 함께 건국이념 가운데 하나다. 세속주의는 또 교육과 문화 및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슬람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터키는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정치 개

입 불허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타튀르크(1881-1938) 초대 대통령이 가진 건국이념에서 비롯된다. 아타튀르크는 국민 대부분의 종교가 이슬람이지만, 이슬람은 개인의 종교로 여기고 국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속주의를 국가의 미래로 설정해왔다.

이는 20세기 초 터키 건국 당시의 국제 정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슬람은 7세기 초 중동에서 탄생해 오늘날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신도수를 거느린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사회의 발전과 변모는 이슬람을 능가했다. 이슬람을 고수해온 중동지역이 과학기술로 무장한 서구 세력의 도전을 받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아타튀르크는 이같은 이슬람국가의 한계를 목도하면서 터키의 미래를 이슬람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한 실리주의와 현실주의를 표방한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미래를 세속주의의 틀 안에서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현대성과 효율성이 세속주의보다 뒤떨어진 이슬람주의로는 서구사회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터키 건국 초기, 그는 공공부문에서 이슬람을 철저히 배제하며 국가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정부가 교육부문을 독점하고 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 칼리프를 숙청했다. 또 이슬람학교인 마드라사를 폐지하고, 이슬람관련 행사 규제했다. 비성직주의 등을 내걸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속주의국가를 나라의 근



▶ 쿠데타군이 이스탄불의 다리를 봉쇄한 모습(출처: TRT Haber 캡처)

간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아타튀르크의 통치철학은 지금까지 터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2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슬람주의를 중시여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 터키 사회는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문제 해결이 주된 관심사로 여겨지게 됐다.

터키의 경제적 악순환 속에 등장하게 된 현 집권당인 정의발전당(AKP)은 16년째 권력을 장악하며 강한 이슬람국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이후, 세속주의와 충돌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932년 발효됐던 공화국 복장법(服裝法)으로 에르도안은 이를 폐지하고 터키 군부 개혁을 시도했다.

터키에서 복장법 폐지는 여성의 히잡 착용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터키에서 히잡 착용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의복자유화란 의미가 아니다. 이슬람이 강제하고 있는 히잡착용을 금한 것은 세속주의의 존폐와 맞물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또 공화국 건국이념인 세속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해온 터키 군부

에 메스를 가해, 더 이상 아타튀르크 정신을 계승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터키의 선교적 상황** = 터키는 그동안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를 규제하는 법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2000년대 중반 말라티아에서 서구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 반세속주의에 따른 이슬람주의가 강화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는 한 기독교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터키 집권당의 장기 집권 움직임과 반세속주의 정책은 기독교 선교에서 커다란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그 땅에 닥칠 수도 있는 핍박에 모든 사역자들과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적인 자세와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NPNEWS]

미니해설

히즈멧(봉사) 운동을 주장한 이슬람 사상가 페툴라 굴렌



이번 터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페툴라 굴렌(사진)은 1938년 터키 동주 엘주름에서 태어났다. 이맘(이슬람 성직자)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이슬람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1960년대

터키 내에 세속주의,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등 이념 갈등이 심화되자 이슬람 세속주의를 가미한 서구식 교육기관을 설립, 히즈멧(봉사라는 뜻)운동을 시작했다.

히즈멧운동은 고비용 양질의 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재를 길러내 결국 세상을 이슬람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터키 내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언론, 병원 등에서 활동하는 ‘굴렌 네트워크’가 형성

됐다. 2008년에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100대 지성 투표 결과 전세계 수많은 학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이슬람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굴렌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초기에 함께 협력했으나, 몇 년 전부터 두 사람은 정적으로 갈라섰다. 현재 미국 체류중인 굴렌을 이번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에 굴렌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GNPNEWS]



선교 통신

이집트 개종자, 감옥에서 경비견도 그를 공격 안해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의 한 무슬림 변호사가 투옥되어 사나운 경비견을 풀어놓은 방에서도 물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투데이에 따르면, 변호사로 활동하던 무슬림 마제드 엘 샤피에는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성경을 공부한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는 한때 변호사로 지역사회 내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된 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카이로에 있는 '지구의 지옥'으로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아부 자벨 교도소에 구금됐다.

엘 샤피에는 이 교도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관들은 다른 기독교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에게 화상이나 자상을 입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다.

그가 겪었던 또 다른 고문은 바로 사나운 경비견들의 공격이다. 교도

소 경비원들은 이 경비견들로 하여금 엘 샤피에를 물어뜯게 하려고 수감된 방에 경비견을 풀어놓았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자 굴의 다니엘 이야기처럼, 경비견들은 그의 곁에 단순히 앉아있기만 했다. 경비원들이 다른 개들로 공격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이 개들은 주인의 말을 듣도록 훈련되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주인은 없다.”고 엘 샤피에는 말했다. 고문이 진행되던 어느 날, 엘 샤피에는 고문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리더의 이름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를 잡을 수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모든 교인의 이름을 정확히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리더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십시오.”라고 덧붙

였다. 엘 샤피에는 이 자백 후, 이전보다 더욱 잔혹하게 고문당했다. 결국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후에 사형이 선고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탈출했고 이후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매일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미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암흑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촛불이 비추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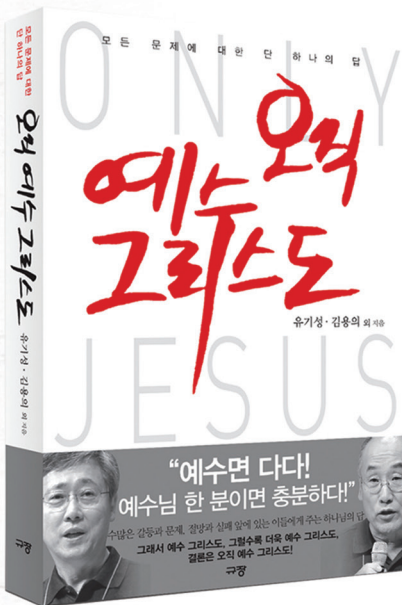
그는 또 말했다. “우리 적들은 아주 강한 군대이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누구도 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GNPNEWS]



▶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박해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단체 One Free World International(OFWI)을 설립한 마제드 엘 샤피에(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IS를 피해 도망한 아지디족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엘 샤피에의 모습(아래).

“모든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답”

무엇을 찾아야 이 방향이 끝나고, 무엇을 붙잡으면 이 목마름이 끝날 것인가?



저자 유기성, 김용익, 메노 칼리셔 이필찬, 임석순

아무리 고통이 크고, 두려움이 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은 딱 한가지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편에 속하는 것이 천하의 어떤 편에 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기꺼이 ‘아멘’ 하겠는가? 어린양이 어디로 이끌든 고민의 여지를 두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면 다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 3:11

구입문의

가격: ~~15,000~~ → 13,500원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복음기도동맹군 소식

아트리, 문화예술선교사 학교 SAM훈련생 모집



문화예술 영역에서 복음과 기도의 삶을 살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문화행동 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가 문화예술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한다. 문화예술선교사학교(School for Art-

missionary, SAM)는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복음이 전부가 되어 문화예술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마감은 8월 26일(우체국 소인 기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gospelartree.com)를 참조하면 된다. ☎ 010-7757-3185 [GNPNEWS]

선교영어훈련학교 2기 훈련생 모집

복음과 기도의 웃을 입은 영어로 열방을 섬길 선교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교영어훈련학교(교장 김인화 목사) 굿뉴스프렌즈(GNF)가 2기 훈련생과 협력간사를 모집한다. 협력간사는 생활영어가 가능하며 복음사관 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9월부터

아웃리치를 포함한 5개월의 합숙과정으로 진행될 이번 학교는 영어로 묵상, 예배, 기도, 전도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영어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집중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8월 26일. 문의 ☎ 010-3233-4641 [GNPNEWS]

미디어선교사학교 제3기 훈련생 모집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대표 김강호 선교사)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들을 양성하는 미디어선교사학교 제3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10월부터 1년간 합숙으로 진행될 이번 학교는 미디어 영역의 전반적 이해와 실습, 마지막 시대에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로 미디어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9월 20일까지. 문의 ☎ 070-7417-0408~10,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언어가 안 통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연합이 이뤄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김맹관·유향순 선교사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품은 부부 선교사가 있다. 어려움도 있었다. 선교사 훈련과정에서 나오기도 있었다. 하지만, 한번 부르신 주님을 의심치 않고 따랐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 부부를 열방 한복판에 세워주셨다. 함께 자리할 수 없어 김맹관 유향순 선교사를 별도로 차례대로 만났다.

-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나요?

“2013년 3월, 한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헌신 초기에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이 2주 사이에 여러 차례 쓰러졌어요. 눈이 돌아가고 입술은 파래지며 몸이 꼬였어요. 주의 종으로 헌신하려고 하니 ‘믿음의 싸움’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또 한 차례 제 눈앞에서 아이가 새파랗게 질리며 쓰러진 순간 ‘이 아이가 죽어도 장사를 치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곧 괜찮아졌어요. 이 사건으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후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는 삶이 시작됐어요.”

- 출발부터 쉽지 않으셨네요.

“네. 선교사훈련을 받으며 연합 기도의 자리를 통해 자녀, 아내, 나 자신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처럼 자기 최선과 열심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나의 열심, 나의 최선, 자기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사형선고가 집행됐고 이제는 그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체가 되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6개월간 모든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중도 탈락이 됐어요.”

- 상심이 크셨겠어요.

“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고 주권자 되신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받게 됐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 기도신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드렸어요. 허락해주는 재정이 많지 않아 쌀만 겨우 사서 누룽지를 끓여 먹기도 하고 길에서 돈도 주워



어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지?’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목상을 하는데 ‘요셉이 창고를 열어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다.’는 말씀을 강하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가족구원에 대한 말씀인가 싶었는데 가족구원을 넘어 열방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재해증반고 1년 단기선교를 결정하고 준비하게 됐지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

-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때 저와 교체하는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가 화두였어요. ‘21세기 희망, 대학생 선교운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의 꿈에 사로잡혔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편에서 가능한가? 질문, 고민, 기도, 씨름을 하면서 우리로서는 안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결론이 났고, 이 기도에 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순간 그동안 해왔던 저의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한 선교사님께서 먼저 이 비전을 받으시고 몇 명의 지체들과 함께 밥을 새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점점 뜨거워졌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해질 즈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은 이슈였어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금식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그때 저희를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삶을 드렸지만

중도 탈락 뒤 상심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에 삶을 헌신하게 돼

결국 선교지로 이끄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로 꿈꾸게 되었어요”

로 불러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꿈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 많은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로 떠나다

-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셨네요.

“2014년 12월에 가족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리더 선교사님께서 2개월 간 한국에 들어가시면서 현지 집시 출신 발로자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우즈고로드 종합대학 벤치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했어요. 주제는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 저는 한국어로 된 ‘복음의 영광’이라는 기도정보로, 그분은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기도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기도정보책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며칠 후 목사님께서도 집시 청년들을 데려왔어요. 손짓 발짓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며 죄, 복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나누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모임에 초청한 대학생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으나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었어요.”

- 언어의 장벽을 뚫고 연합기도가 드러졌군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바로 발로자 목사님이예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도중에 그분의 사위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살아날지조차 불확실했어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께 권면했어요. ‘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 기도는 전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테니 당신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발로자 목사님은 4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결국 승리를 주셨어요. 수술은 잘 됐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 믿음의 기도가 역사했군요.

“그 영광을 본 이후 리더 선교사님 부부와 발로자 목사님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이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저 자신에 대해서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그 부흥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저라고 하셨어요.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했을 때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내시고 ‘주님이 친히 부흥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 회개 이후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셨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진짜 우리의 꿈이 되자 이 소망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마침 제가 사는 지역의 큰 교회에서 주일예배 때 이 소망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실제 기다리는 삶을 살자고 도전했어요. 예배가 끝나자 젊은 청년들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인들이 반응하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안아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실 텐데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요엘서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목하니 모든 세대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볼 거예요.”

- 우크라이나로 장기사역을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년 사역을 마칠 즈음 16시간 기차여행을 하며 혼자 대사관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선교단체이든 열방 어디든 상관없게 됐어요. 어디로 부르시든지 아멘하며 장기사역을 결정하게 됐어요.”

- 기도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시는 비전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구체적인 기도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저 만큼 이 소망을 품은 현직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인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안에 이 기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어 별도로 만난 아내 유향순 선교사의 이야기다.

- 우크라이나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이미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두 가정의 연합은 좀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복음이 제게 실제 되지 않은 영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선교지의 특성상 교제의 폭도 좁다보니 저에게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몸살을 앓았어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 원망, 분노, 다툼, 자기연민과 우울, 게다가 잘 웃지 않는 제 상태가 공동체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많이 어려웠어요. 복음의 진리가 저에게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리더 선교사님들의 여러 권면을 받고 노력해보기도 했지만 잠시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의 빛을 발하라(7)

이중간첩으로 살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뜻을 정했던 단심(丹心)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은 권능을 드러내셨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단 2:47)

이스라엘이 짓밟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청년 서너 명을 통해 만국 앞에 드러났다. 고대제국 황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은 제국 전역의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통해 전해졌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의 몸은 결박되지도 않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때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드높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



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단 3:29)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행 4:12).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

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렇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의해 이 진리가 짓밟혔다. 모든 권력과 국력을 다 가지고도, 성전과 제사장을 소유하고도 그들은 외치

지 못했다. 영광스러운 선교 사명을 망각한 채 그들은 결국 ‘주여, 주여’하다가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이제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죽겠다.’고 결정한 청년들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국력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다.

캠퍼스에서 조롱당하는 기독교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으며 일곱 때를 지내게 된다. 그 후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단 4:32)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다.

누구를 쓰셨는가? 불쌍하고 가련한 소수의 사람들, 뜻을 정하여 주

님을 따르기로 했던 청년들이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만국 위에 높이 드러내셨다. 지금 캠퍼스에는 적(敵)이 깃발을 꽂아 놓고 승리한 양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교육, 의료, 학문 등 사회 전반에 선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은 없었다. 지금도 한국의 웅만한 비정부기구(NGO)들과 많은 자선단체들이 기독교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작금의 기독교는 무슨 가짜 물건을 팔다가 걸린 사람처럼 스스로 잔뜩 주눅이 들어 있다. 게다가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류에 휩쓸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런 이중간첩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결론 삼고,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4.8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다림줄 (13) | 유신진화론 vs 창조론 (10)

시간과 시간의 주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최근 진화론을 수용하며 그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유신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유신진화론적 시각에서 집필된 우종학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이하 ‘무크따’, IVP刊)에 대해 창조과학 전문가인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회)가 반론을 제기했다. 본지는 이재만 교수의 글을 요약, 연재한다. <편집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크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극단적으로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 가령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겠나?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태양이 있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낮과 밤이 있었고 하루가 정의되었다는 말인데 이해하기 어렵다.”(p.146)

이런 질문은 창세기 1장을 다룰 때면 무크따의 저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 주간에 걸쳐 시간의 주기도 창조하셨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주기가 ‘하루’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주기다. 지구가 태양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지동설이 등장하기 오래전에 이미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를 언급했다는 면에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분의 계시를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주기는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며 언급된 ‘해(年, year)’이다(창 1:14). 모든 물질은 질량이 무거운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다. 즉 지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세 번 자전하고 네 번째 자전할 때 훨씬 무거운 태양이 창조되므로 자전만 하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진 이때 성경은 정확히 ‘해’를 언급했다. 만약에 성경에서 태양이 창조된 다음 하루를 언급했다면 과학자들에게 더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지구만으로 하루, 태양이 창조되었

을 때 연한을 언급하는 정확한 순서를 보여준다.

진화론을 신뢰하는 골격해석

무크따의 저자는 또 이렇게 주장한다. “창세기 1장은 시적 구조를 갖는데 첫 번째 3일과 두 번째 3일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궁창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육지와 같이 골격을 만들고, 두 번째 3일 동안에는 각각의 구조물에 들어갈 새나 물고기나 동물 같은 내용물을 창조한 것으로 배치해서 기록했다는 것이다. 창세기 기자는 창조와 안식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며, 시간적 순서를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다.”(p.144)

저자가 주장하는 골격해석은 최근 신학계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 해석은 진화론이 보편화되면서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실제 기록으로 보기보다는 시나 설화와 같은 하나의 문학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진화론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 [GNPNEWS]

<5면에 이어>

Interview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며 관계가 개선됐어요”

-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남편은 계속 저와 함께 진리로 싸워주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왜 저를 혼계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권면해 주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미움들과 불순종 같은 죄들이 제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말이 진실한 친구의 충성스런 권고로 받아졌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여 지옥에서 건지기 위함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졌을 때 제 마음이 풀렸어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이들과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매를 드는 것도 하지 못했던 저였어요. 그러나 매가 영혼을 스올에서 건진다는 말씀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씀에

순종해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엄하게 양육하고 있어요.”

- 놀라운 변화네요.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사실 처음에 지원했던 선교단체 허입이 무산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특정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서 믿음으로 섬기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게 됐어요. 자녀를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남편과 한 몸, 한 부르심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섬기고 싶어요.” [GNPNEWS]

S.A.





“수건으로 헹벗은 아이의 몸을 감싸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복음을 만난 후, 나는 주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도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선교훈련학교를 다녔다. 거듭 학교를 다니며 훈련 마지막 과정인 아웃리치를 이번에는 갈 수 없다며 스스로 다짐했다. 1년에 두 번씩 해외로 아웃리치를 나가려니 나이 많은 할머니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뭇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내 상황과 염려에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훈련학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믿음으로 권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에 실망치 않으신다 하시며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우리 함께 가자’고 하셨다.

멀고도 먼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웃리치 팀이 구성되고 약속의 말씀, 재정, 비행기 표 등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속도를 보니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다. 출국 전, 주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 내가 믿고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셨다. 남아프리카

로 가기까지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됐다. 살고 있는 통영을 출발, 중간 집결지에 모여 밤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도 두 번을 경유했다. 가기 전 꼬리뼈를 다쳐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만 앉아 가니 잠이 올 리 없었다. 혼자 묵상을 하는 중 루비켄드릭 선교사님이 생각났다. 아무런 소망 없는 조선 땅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와 생명 다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순교한 선교사.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남아공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나타난 무지개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케이프타운으로, 거기서 다시 목적지인 우스터로 향하는 길에는 고속도로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 현지에서 합류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도착한 날이 마침 몇 개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날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무지개가 보였다. 다양한 인종이 살아서 무지개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은 흔한 일이겠지만 나에게만 하



나님의 약속처럼 보였다. 짐을 풀 후, 우스터 지역 전체가 보이는 산등성이로 올랐다. 빈부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다음 날, 빈민촌 교회를 방문했다. 한국 선교사님과 장로님 가정 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이들을 섬기고 계셨다. 마침 예배가 끝난 때라 많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함께 간식을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며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다. 바로 앞에는 빈민촌 교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다.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이곳은 영

국인들이 세운 교회로 인종차별이 남아 있어 백인과 흑인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영국인들은 당시 메리 여왕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 이곳 케이프타운으로 왔지만 자신들의 땅인 것 마냥 차지하고, 현지인들을 노예로 삼고, 학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기도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연상되었다. 그때 한 아이가 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

를 안아주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선뜻 다가설 수 없었지만 손을 내밀자 아이가 온몸으로 안겼다. 헹벗은 아이에게 고작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곤 두르고 있던 수건을 벗어 아이의 몸을 감싸주는 것이었다.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웠다.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사랑이 이루어지나? 탄식이 나왔다. 그때 구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후 3박 4일간 열방을 위해 릴레이로 기도하며 우리와 이 땅의 교회와 다음세대들을 위해 기도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순간들, 믿음이 없어 복음을 살아낼 수 없었던 시간을 회개하며 더욱 믿음으로 선포했다. 남아공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었다.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마칠 것이다.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웃리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열방을 밝게 하신 주님의 열심을 찬양한다. 주님이 하셨다. [GNPNEWS]

조남미(꿈과사랑의교회)



“내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될 꿈을 꾸다”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려고 하면 언제나 떨리고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날마다 분명히 알게 해 주신다. 전도를 처음 하게 된 것은 학교 수업에 편성된 전도시간을 통해서였다. 참고로 내가 다니는 학교는 다음세대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다. 처음엔 그 시간 외에는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주어지는 시간 외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전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외치며 주님 속히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고 기도는 하면서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분명 불순종이었다.

최근 고구마전도왕이라고 불리는 한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던



나의 태도를 돌이켰다.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질문으로 다가 전도지와 복음기도신문을 나누어 드렸다.

친구들과 만든 전도지를 전하며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전도지를 활용한다. 어른들도 잘 읽을 수 있게 큰 글씨로, 내용은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우리의 잘 정리된 말이나 문장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나눠주는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충분히 주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순종하니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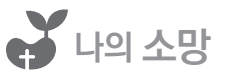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다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일대일 전도에 돌입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이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가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전하게 하신다.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생명이 된 십자가. 비록 길게 나누지 못하고 잘 정

리된 말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된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에게 구원을 베푸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한 가지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할 때 1년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억 명이라고는 하지만 복음을 들은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한 달이면 충분히 주님 오시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단한다. 매 순간 보이는 상황이 아닌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로. [GNPNEWS]

김채운(19)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

대동강변에서 제너럴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였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창을 겨누는 병사에게 ‘야소!(예수)’를 외치며 성경책을 건넸다. 그리고 곧 죽음을 맞았다.

1866년 9월 5일,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피를 흘리며 그가 전해 주었던 성경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은 평양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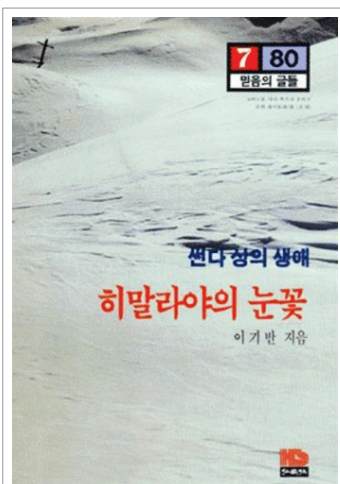
훗날 장로가 된 토마스의 목을 벤 박춘권, 서가교회의 홍신길, 평양교회의 최치량. 또한 그에게 받은 성경을 벽지로 바른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히말라야의 눈꽃 : 썬다 싱의 생애」

티벳교회를 위해 히말라야의 눈꽃이 된 사람



이기반 지음 | 홍성사 | 206 쪽
| 1990 | 8000원

썬다 싱이란 분을 아세요? 인도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질문을 통해 처음 썬다 싱을 알게 되었다. 그가 궁금했다. 3억3000만의 우상을 섬기는 인도에서 어떤 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와 힌두의 기운이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싶었다.

썬다 싱의 아버지는 독실한 시크교도이자 대지주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특별했는데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신을 찾는 훈련을 받았다. 장성한 후 그런 성장기 환경을 준 신께 감사를 드렸다. 내게 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또 신을 늘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가슴이야말로 내게는 좋은 신학교였다.”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한 어머니를 14살에 잃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절망과 방황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는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그가 사는 지역에 다른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예수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내며 성경을 찢고 불태워버렸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믿음과 같이 신을 찾았다. “신이여! 이제 나는 죽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게 나타나서 평안을 주옵소서. 만약 당신이 나타나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첫 열차가 내 목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을 찾는 부르짖음. 깊은 새벽에 혼신을 다해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갑자기 방안 가득 강렬한 빛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썬다야,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박해하려느냐? 나는 네가 찾는 길인 예수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도다.’

그날 이후 썬다 싱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 말했다.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 간곡한 부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썬다는 유일한 구원 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를 것을 선언했다. 아버지를 거역함과 시크교의 전통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 아버지께 받은 마지막 밥상엔 독이 든 음식이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기적과 같이 살아났

다. 그리고 그를 치료한 의사가 그를 통한 첫 회심자가 되었다.

시크교를 버린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갔다. 일체를 내놓아야 일체를 받는다는 신념으로 그는 오직 가난, 청결, 겸손, 비우고 낮아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이후 그는 티벳을 향한 복음 전도에 마음을 불태웠다. 그를 사로잡은 복음의 열정은 신들의 산이라 불리는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도,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에도,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식어지기는커녕 더욱 강렬해졌다. 왜냐하면 전도여행 중에 만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험난한 티벳 선교는 다시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이상인 영광이었다. 티벳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라면 이 한 몸 찢겨 죽을 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간절한 소

망대로 썬다는 히말라야의 눈꽃이 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나이 40세, 1929년의 일이다. 사람들은 티벳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책을 읽는 내내 맨발로 인도전통 의상인 홍포를 입고 있는 썬다를 눈앞에서 대하는 듯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인지 그를 통해 보았다. 말은 화려하지만 생명력 없는 신학 지식이 아닌, 오직 복음이,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증인의 삶이 영혼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심령 안에서 확증하게 되었다.

썬다의 죽음과 같은 목마름. 그리고 친히 찾아오시는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죽음도 이기는 영광. 나도 이 길 위에 세우고 오직 주를 소유한 삶으로 살기를. 가난과 희생, 겸손과 낮아짐을 배워 십자가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어린양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소망해 본다. 마라나타!

[GNPNEWS]

우미영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열방의 고통을 체휼케 하신 30시간의 진통

얼마전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3일간의 시간은 지금의 나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

진통이 계속되는데 아침이 되고 다시 밤이 되어도 태문(胎門)이 1센티미터도 열리지 않아 아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죽을 것 같은 진통이 계속되었다. 의사 선생님은 유도분만을 권했지만 남편과 나는 기도하며 더 기다려 볼 것을 믿음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 또한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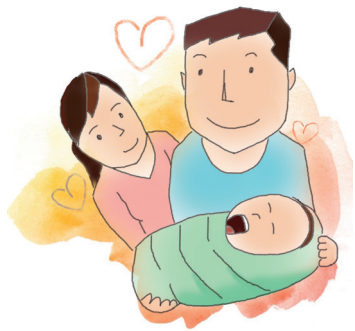
긴 밤을 지새우며 진통이 잠시 가라앉을 때마다 나는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주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혹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야야.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명 받은 자의 강령하는 기도란다.”

그러자 이 순간에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아무리 둘러봐도 이 고통을 끝내줄 이가 없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열방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내 앞에 지나갔다. 그동안 얼마나 이 실재를 무시하고, 방관하며, 간절함이 없이, 사람

을 의식하여 세련되게 기도했었는지. 누군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적당히 위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주님 앞에 그동안 나의 기도의 삶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다.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에게, 핍박받는 나와 한 몸 된 교회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는 진통이 올 때마다 간구하기 시작했다. 너무 아파 소리가 안 나올 땀 이를 물고 신음으로 구했다. “열방에 생명의 문을 열 자들을 세워 주세요. 강령하는 기도로 기나긴 고통의 역사를 끝낼 자들을 군대로 일으켜 주세요. 산도에 끼어있는 아이를 건져내듯 목숨 걸고 간구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세요.” 강령하고 또 강령했다. 어느 때보다, 아니 처음으로, ‘강령’이 무엇인지 비로소 실체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거였군요. 주님. 이런 거였군요. 이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 한창 진통하는 중에 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를 봤다. 그 메시지는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긴 밤 지나고 새벽이 동터오듯, 흑암의 세월 지나 주님이 다시 오시듯, 해산의 수고 후에 소망의 우렁찬 찬송 소리 들리겠네!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없이 신음할까! 주님은 지금도 쉬거나 잠드셔서 안 된다고 강령할 중보자를 얼마나 절실히 찾으실까! 지금도 복음화의 전진을 급속도로 이루시고 계속 복음을 열방 구석구석 계시하시는 부흥을 애간장 녹이며 강령하는 주님의 마음 맑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길 얼마나 바라실까! 모두가 잠든 이 밤에도 신음과 고

통으로 두려워하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었지! 열방을 체휼하며 보내는 이 밤이 지나면 해산의 기쁨으로 가득한 아침이 다가오겠지! 열방을 잉태하고 산고를 겪는 중보자들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을 우리 세대 가운데 낳으실 주님이 더욱 사모되네! 여호와 닮이!

결국 아이는 30시간의 진통 끝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누군가는 아이를 낳으며 가장 불행한 케이스라고 말할법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수술을 했으면 쉽게 출산할 수 있었을 텐데, 진통은 진통대로 다하고 결국 출산은 수술을 통해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30시간이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소망이기를 만난 것 이상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셨다.

이제 소망이기를 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하루하루 더욱 강령하며 사는 진정 기도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한다. [GNPNEWS]

김현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8. 5 ~ 8. 18 (가나다 순)

개인

김민성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유남 김은영 안병윤 유자인 윤경석 이경희 이지수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정해월 정행숙 조상국 최근희 허금희 홍미자 무명

교회 및 단체

검단교회 겨자씨선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모리아선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미주지부
ShAM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인천주님의교회
주만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총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